



■■■■■ Section [5]

격세지감? 격세공감!



공사의 최강파워, 관광지도부



210

관광지도부 50년 이야기

1970년대 후반, 관광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관광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지도부가 설치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관광시설과 서비스가 낙후되어 있었을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토산품 판매소나 한식당에서는 소위 기생관광을 알선하는 낮부끄러운 풍토가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부조리와 낙후된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골칫거리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외화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관광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불호령으로 이어졌고, 지도부 설치를 지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1976년 11월 관광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광 서비스 개선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이어서 지도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지도부가 한국관광공사에 설치되었으며, 지도부장은 공사 출신이 맡았다.

1977년 1월에 설치된 지도부는 그 해 5월에 보다 효과적인 지도업무를 위해 공사 지도부와 교통부, 서울시 직원 등으로 구성된 '관광사업개선전담반'을 구성하였다.

지도부는 관광숙박업, 여행알선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유관장소를 각기 담당할 14개 반 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광업소의 서비스와 거래질서를 점검, 조사하여 불량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건의하고 '관광 서비스개선협의회'의 지시사항을 수행했으며, 부조리신고센터도 운영했다.

..... 지도부는 행정력과 단속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부나 경찰의 단속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지도부 완장(비표)을 차고 단속에 나서면 거칠 것이 없었다. 지도부는 서울은 물론 전국을 돌며 지도 점점에 나서기도 했다. 단속에 걸리거나 말썽이 있는 업소는 즉시 영업정지에 처해지는데 업소 측에서는 이를 가장 두려워했다.

관광지도부는 청와대 소속으로 청와대 경제담당비서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고, 사무실도 청와대 옆에 자리하고 있는 문화재관리국 안에 있었다. 당시 관광지도부의 권한은 어느 권력 못지않게 막강한 것이었다.

관광지도부는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경비전화를 사용하였는데, 시청이나 도청 같은 곳에 경비전화를 걸면 다들 청와대에서 걸려 온 전화라고 생각하여 무슨 말이든 “예스”라고 대답했다.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권력은 막강했고, 지도부 또한 경비전화 한 통이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였다. 권한도 권한이었지만,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었고 보다 많은 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었다.

지도부는 행정력과 단속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부나 경찰의 단속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지도부 완장(비표)을 차고 단속에 나서면 거칠 것이 없었다. 지도부는 서울은 물론 전국을 돌며 지도 점점에 나서기도 했다. 단속에 걸리거나 말썽이 있는 업소는 즉시 영업정지에 처해지는데 업소 측에서는 이를 가장 두려워했다. 지도부의 활동으로 인해 공사의 위상도 높아졌으며, 민간에서도 공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도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관광업계의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는 등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대형 화재 속에서도 강행처리한 최초 월급 인상

한국관광공사 설립 초창기에는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줄 월급조차 없어서 매달 급여일인 21일이 되면 은행에서 돈을 급하게 빌려야 할 정도였다. 1963년 4월에 부임한 이원우 제2대 총재는 사장직을 맡은 첫 달부터 직원들의 봉급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야만 했다. 이원우 총재는 제일은 행장을 직접 찾아가 어렵사리 자금을 대출받아 간신히 급여 지급을 해결하고 나서 “앞으로 공사를 꾸려나갈 일이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한 상황은 몇 년이 지나도록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니 급여 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1969년 당시 노무후생계장이었던 권순 지사장이 공사 최초로 급여 인상안을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고, 이듬해인 1970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되기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1970년 1월에 한국 최초의 명품상가인 반도아케이드 화재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공사의 손실은 매우 컸다. 급여 인상은 자연스럽게 무산되는 듯했다. 그러나 권순 지사장이

“급여란 한번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면 시행해야지 다시 하향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원칙을 고수하면서 급여 인상은 원안대로 시행되었다. 공사 최초의 급여 인상이었다.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그때 그랬지!”

198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서 ‘관광’이란 말은 생소한 단어였고, ‘관광’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정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 ‘관광’은 소모적이고 퇴폐적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9년 1월 1일부로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시켰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해외관광 러시가 일어났다. 그러나 해외관광을 나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외여행 경험이 거의 없었고, 관광객으로서 지켜야 할 소양이나 의식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허다했다. 해외 각지의 관광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터졌다. 여행 국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웃지 못할 일들이나 실수담, 또는 일부 지각없는 관광객들 때문에 벌어진 부끄러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다.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의 천태만상은 비행기 내에서부터 시작된다. 다른 승객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거나 지정된 좌석을 무시하고 이리저리 자리를 바꾸

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것은 심증팔구 한국 사람들이었다. 기내에서 화투를 치거나 컵라면을 먹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심지어 내복을 꺼입고 비행기에 올랐다가 기내 온도가 덥다고 느껴지면 좌석에 앉은 채 내복을 벗어던지는 꼴 사나운 광경도 볼 수 있었다.

단체 여행객을 인솔하는 여행사 직원들은 탑승 전부터 신발을 벗지 마라, 금연석이냐 화장실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마라, 스튜어디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손뼉을 쳐서 부르지 마라 등 세세하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지만, 일부 거칠고 무절제한 관광객



들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였다.

해외에 나간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먼저 타려고 앞사람을 밀친다거나 호텔 숙박료를 계산할 때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밖에도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아무데서나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동은 해외여행 초기의 감기와도 같은 질병이었다. 특히 질서를 잘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일본에서는 이런 행동이 단연 눈에 띄기 마련이다.

더 심한 경우도 허다했다. 식당에서 만취한 채 추태를 부리거나 개수구가 없는 호텔 목욕탕에서 탕 바닥까지 물이 튀게 샤워를 하다 카펫을 흥건히 적셔 벌금을 무는 일도 흔하게 일어났었다.

특히 숙소에서의 추태는 극에 달했다. 방 안에서 밥을 해먹어 음식냄새를 풍기거나 재떨이에 물을 붓고, 고스톱을 치거나 고성방가를 일삼는 것은 예사였다. 잠옷 바람으로 동료의 방을 찾아 호텔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더 심한 경우는 방안에 들어온 파리나 모기를 잡기 위해 신발로 벽을 때려 벽지를 더럽히거나 호텔에 비치된 수건이나 재떨이 등의 물건을 그냥 들고 나오기도 했다.

.....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의 천태만상은 비행기 내에서부터 시작된다. 다른 승객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거나 지정된 좌석을 무시하고 이리저리 자리를 바꾸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것은 심중팔구 한국 사람들이었다. 기내에서 화투를 치거나 컵라면을 먹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심지어 내복을 꺼입고 비행기에 올랐다가 기내 온도가 덥다고 느껴지면 좌석에 앉은 채 내복을 벗어던지는 꼴사나운 광경도 볼 수 있었다.

.....

이러한 문제들이 수시로 반복되면서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일부 국가의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객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급한 한국 사람들을 위해 식당에서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뒀다가 앉자마자 먹을 수 있게 준비하면 재촉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단체 관광객들은 숙소를 정할 때 한 층에 몰아넣고 안내원의 방을 같은 층에 배치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폭소가 터질 이런 일들은 당시에는 큰 골칫거리였고, 공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안보와 에티켓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당시 여권 신청자는 공사 산하 관광교육원, 자유총연맹, 예지원 등에서 수강료 3000원을 내고 하루 동안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다. 해외에서의 한국인 납북사례와 조총련 활동 등에 관한 안보교육 등을 받고 필증을 제출해야 여권을 손에 질 수 있었다. 해외여행자에 대한 교육은 1992년 6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화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있었다. 바로 무절제한 향락, 퇴폐행각이었다. 특히 동남아 국가에서의 성매매나 보신관광 등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객들은 꾸준히 늘어났고, 1996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외에서의 부끄러운 행태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해외에 나가서 선진사회의 문화와 의식수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가학습이 된 것이다. 결국 해외여행 자유화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호텔들

우리나라에 호텔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것은 관광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일제강점기부터이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호텔은 일본인 사업가 호리 리키타로에 의해 지어진 대불호텔이다. 대불호텔은 1888년 서울이 아닌 인천시 중구 중앙동에서 문을 열었다. 그 이유는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일본인은 물론 서양의 선교사와 외교사절, 사업가들의 발걸음이 점차 잦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적지는 서울이었지만, 당시 교통수단이 조랑말과 가마 등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인천에 개업을 한 것이다.

대불호텔의 객실 수는 서양인들에게 익숙한 침대 객실 11개, 다다미방처럼 꾸민 객실 240개였으며, 숙박료는 상급 객실 2원 50전, 중급 객실 2원, 하급 객실 1원 50전이였다. 이곳의 숙박료는 당시 여관 숙박비의 2배가 넘는 비싼 금액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불호텔은 오래가지 못했다.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인천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당일로 서울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불호텔 건물은 중국인에게 인수되어 중국음식점으로 바뀌었다.

대불호텔이 한국 최초의 근대식 호텔이었다면 손탁호텔은 '살롱정치'의 본거지였다. 1902년 정동 29번지에 건립된 손탁호텔은 황실과 매우 가까이 지내던 러시아 대리



..... 대불호텔은 1888년 서울이 아닌 인천시 중구 중앙동에서 문을 열었다. 대불호텔이 한국 최초의 근대식 호텔이었다면 손탁호텔은 '살롱정치'의 본거지였다. 호텔의 창은 아치형으로 멋을 냈으며 창 사이의 벽을 작게 하고 모든 벽면을 아케이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공사 베베르의 처형인 손탁(Sontag, 독일여성)이 지은 것으로,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왕실 소유의 땅에 지어졌다. 손탁이 이 땅에 처음 지은 것은 살롱이었다. 이곳은 서양 외교관들과 선교사, 그리고 민영환, 윤치호, 서재필, 이상재, 이완용 등 외국물정에 밝은 국내 인사들의 고급사교장으로 이용되었다. 이들이 조선의 중립화를 목표로 정동구락부라는 친목단체를 결성한 것도 여기에서였다.

손탁은 당시 외교의 중심지였던 이 살롱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2층으로 된 손탁호텔을 건립하였다. 손탁호텔의 1층은 보통 객실과 커피숍으로, 2층은 귀빈 객실로 이용되었다. 호텔의 창은 아치형으로 멋을 냈으며 창 사이의 벽을 작게 하고 모든 벽면을 아케이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살롱정치'의 본거지로서 명성을 높였던 손탁호텔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호텔은 서구문물의 유입지였으며,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1905년 을사늑약을 강요하기 위해 방한한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에서 묵었으며, 일본 군부와 한국의 친일파를 조종했던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을사늑약을 성사시킨 후 친일파와 기념사진을 찍은 곳도 손탁호텔 앞이었다. 러일전쟁 당시에는 중군기자였던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과 톰소여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인도 이 호텔의 고객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호텔 중 격량의 시기를 거치며 가장 파란만장한 역사를 간직한 곳이 반도호텔이다. 반도호텔은 노구치 시다가후라는 일본인 재벌에 의해 1938년에 지어졌다. 한국 최초의 민간호텔이자 롯데호텔의 전신인 반도호텔은 지하 1층, 지상 8층, 96개



대불호텔, 인천 중구 중앙동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근대식 호텔, 1880년대

의 객실을 갖춘 초대형 호텔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할만한 건물이 없었고, 동양에서도 4위권에 드는 건물이었다.

반도호텔은 건물의 위상과 규모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앞서나갔다. 결혼식장과 위스키를 마실 수 있는 바, 교류의 장이었던 1층의 사교실 등은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엘리베이터까지 배치되었다. 반도호텔은 당시 명동의 댄디보이, 댄디걸들에게는 꿈의 건물이었다.

반도호텔은 당시 특권과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었다.

1945년 미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하지 중장은 반도호텔에 숙소를 정했다. 그리고 미군 제24군단 사령부 사무실과 장교 숙소도 이곳에 동지를 틀었다. 당시 국내의 정계 실

..... 한국 최초의 민간호텔이자 롯데호텔의 전신인 반도호텔은 지하 1층, 지상 8층, 96개의 객실을 갖춘 초대형 호텔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할만한 건물이 없었고, 동양에서도 4위권에 드는 건물이었다.

력자들은 하지 중장을 만나기 위해 수시로 반도호텔을 드나들었다. 김구, 김규식, 이승만 등 우리나라를 이끌던 정계 인사들도 이곳에서 하지 중장을 만나 국사를 의논했으며, 1948년 정부수립을 위한 회의도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전쟁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 곳도 반도호텔이었다. 이곳에는 195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뉴스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전쟁의 개요를 알려 유엔군의 참전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개입으로 후퇴했던 유엔군이 서울 수복 후 태극기를 내걸었던 곳도 서울역과 중앙청, 그리고 반도호텔이었다.

반도호텔이 호텔로서 제 구실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8월부터였다. 휴전 이후, 미8군은 용산 등지로 이전되었고, 반도호텔의 관리와 책임권이 우리 정부로 이관되었다.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던 반도호텔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서양식 건물로 꾸며졌으며, 1954년 10월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일류호텔로 거듭나게 되었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한 층이 더 높아진 9층이 되었고, 28개 스위트룸, 45개 트윈룸, 29개의 더블룸, 9개의 싱글룸을 갖추었다. 이밖에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대연회장과 스카이라운지가 갖춰져 현대식 호화호텔의 위상을 한껏 과시했다.

반도호텔은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있던 이기붕 부통령은 반도호텔 809호를 전용사무실로 썼다. 이곳에서 당무회의가 열리는 일은 다반사였고, 정치인들의 출입도 잦았다. 반도호텔은 국정감사반도 얼씬 못할 정도로 권력의 심장부였으며, '호텔정치'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4·19혁명 직후 반도호텔에서는 영화에서나 볼직한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5·16 군사쿠데타 당시 쿠데타 세력들의 1차 목표물은 중앙청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반도호텔이었다고 한다. 당시 장면 총리는 호텔 808호와 809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쿠데타 당일 새벽 2시 경 장면 총리는 군인들이 들이닥치기 불과 10분 전에 극적으로 호텔을 빠져나갔다. 이때가 바로 향후 20여 년간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게 된 박정희 정부가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경제계 대표를 만나는 일이 자연스럽지만 이승만 대통령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다. 대통령이 사농공상의 신분의식에 젖어 있어서 기업인들과 국사를 논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961년 3월, 반도호텔 8층 장면 총리의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는 기념비적인 자리였다. 장 총리를 비롯하여 상공장관, 재무장관 등 핵심각료들과 한국경제협의회 김연수 회장(당시 삼양사회장), 이한원 부회장(당시 대한제분 사장) 등 경제인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한 정재계회의였다. 재계가 당당히 국사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부상된 역사적 사건이며, 훗날 '한강의 기적'의 초석을 마련한 자리였던 것이다.

이밖에도 반도호텔은 우리나라 호텔의 마케팅 역사를 선도하는 역할도 했다. 1970년에는 해외 유학과 직원들에 의해 고객이력카드제도가 도입되었고, 서구식 호텔 운영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호텔 매뉴얼도 최초로 제작하였다. 또한 반도호텔은 핵심 권력의 집결지였던 만큼 이곳을 다녀간 인물들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쟁쟁한 사람들이었다.

반도호텔은 이후로 1974년 호텔롯데에 매각되어 헐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 롯데호텔이 들어섰다.



하늘로 날아오는 은제(銀製) 재떨이

1962년, 경기대학교 부설 관광요원 양성소를 수료한 49명의 젊은이들이 공채 1기로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했다. 이들은 먼저 실습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워커히호텔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실습생들의 주요 업무는 청소나 실무교육 외에 외국



에서 수입한 수많은 기자재들을 일일이 정리하여 해당 영업장에 비치하는 일이었다. 실습생들은 힘들고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호텔 역시 그만큼 분주하게 그러나 매우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 전체가 발각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시작은 장성급으로 구성된 5·16주체세력이 ‘박정희 의장 각하’를 모시고 워커히 명월관(한국관)에서 만찬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서부터였다. 워커히호텔은 초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웨이터들은 유경험자 중에서도 실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워커히, 반도, 조선호텔에서 차출하여 사전에 신원조회까지 끝내고 수십 차례에 걸쳐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현장을 점검하러 온 주체 측 관계자는 모든 준비가 만족스럽다며 한 마디 칭찬을 하고는

“각하의 재떨이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행사 총지휘자는 각하 전담 웨이터가 담당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점검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매우 고압적인 어조로 말했다.

“각하는 흡연을 많이 하시니 자주 재떨이를 갈아줄 담당자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알겠습니까?”

점검자가 돌아가자 총지휘자는 콧방귀를 끼며 ‘별 시답지 않은 일을 다 시키네’라고 중얼거리곤 실습생 한 명을 불렀다. 원칙적으로 실습생은 본 행사장에서 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다. 그러나 재떨이 갈아주는 일 정도라면 실습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총지휘자는 실습생에게 은으로 만든 재떨이 두 개를 건네주며 최고회의 의장의 담배 재떨이를 담당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타의 아무런 주의사항 없이 ‘내가 너를 쳐다보면 의장 각하 앞에 있는 재떨이를 갈아주라는 신호이니 그렇게 알고 기다리라’고만 했다.

실습생은 양손에 재떨이를 든 채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그

..... 정신을 간신히 가다듬으며 반들반들한 장판방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실습생은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슬라이딩하듯 미끄러지면서 각하 앞에 있는 교자상을 뒤엎고 말았다.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교자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 먹다 남은 잡채며 떡, 불고기, 고추장에 버무린 낙지와 술병, 술잔, 접시, 젓가락 그리고 은제 재떨이가 천정을 향해 솟구쳐 오르더니 온 방바닥에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실습생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는 양말만 신은 채였다. 행사장이 실내인 만큼 구두를 신을 일은 없었으나 그 대신 모두들 슬리퍼는 신고 있었다. 현장 경험이 전혀 없었던 실습생으로서는 마룻바닥에 왁스가 듬뿍 발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실습생은 총지휘자가 잘 보이는 구석진 곳을 골라 자리를 잡고 서서 신호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각하가 오늘따라 담배를 덜 피시는지 신호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실습생은 구석 자리에서 서성거리며 행사 진행 과정을 훑어저러 바라보고 있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드디어 총지휘자가 실습생을 바라보았다. 신호를 즉각 감지한 실습생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한 뒤 은제 재떨이에 깨끗한 핸드타월을 깔고 의장 각하 정면까지 걸어가서 90도 각도로 우향우 한 다음 30~40센티미터 높이의 온돌방에 올라섰다. 그 때 의장 각하와 시선이 마주친 실습생은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각하의 저 강렬한 눈빛, 눈에서 쏟아지는 두 줄기의 빛이 내 육체의 모든 운동신경을 마비시키는구나. 이럴수록 더욱 차분해야 한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정신을 간신히 가다듬으며 반들반들한 장판방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실습생은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슬라이딩하듯 미끄러지면서 각하 앞에 있는 교자상을 뒤엎고 말았다.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교자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 먹다 남은 잡채며 떡, 불고기, 고추장에 버무린 낙지와 술병, 술잔, 접시, 젓가락 그리고 은제 재떨이가 천정을 향해 솟구쳐 오르더니 온 방바닥에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실습생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이 교자상 밑에 누워 있다는 사실과 각하를 벽 쪽으로 2미터 정도로 밀쳐냈다는 것을 알았다. ‘아 이제 죽었구나.’하는 생각에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 없었던 그는 죽은 듯이 누워 있었고 곧이어 검은 양복 차림의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쳐 실습생을 들쳐 업고 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그후 실습생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캄캄한 지하실에 끌려가 갖가지 조사를 받았다. 각하를 놀라게 하라고 사주한 자가 누구냐? 언제부터 모의한 것이냐? 왜 미끄러졌느냐? 하며 별의 별 심문을 다 받고 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실습생의 발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씩 웃으며

“범인은 바로 이 놈이었군.”

실습생의 발에는 왁스로 뒤범벅이 된 양말이 그대로 신겨져 있었다.

실습생은 별탈없이 조사를 마치고 워커히호텔로 돌아왔고 공채 1기라는 상징성 때문이었던지 호텔에서 쫓겨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늘같은 의장 각하의 교자상을 뒤엎고 호텔을 발각 뒤집어 놓은 실수가 그리 쉽게 잊히지는 않았다.

은제 담배 재떨이를 하늘로 날려버린 비운의 주인공 이예한 님은, 최고의 호텔 총지배인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한국관광공사에 들어왔으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온갖 질타와 눈총을 받으며 후방 부서를 전전하다가 현재는 은퇴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커튼 뒤에 숨은 미 존슨 대통령

1966년 10월 31일 미국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워커히호텔 에메랄드 하우스에 숙소를 정한 미 방문단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과 함께 워커히호텔 코스모스홀에 마련된 디너파티에 참석했다.

코스모스홀에 들어선 존슨 대통령 내외는 국내외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전등불이 꺼지고 행사장은 삼시간에 칠흑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예기치 못한 정전이였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의자 넘어지는 소리, 외마디 비명, 둔탁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구두 발걸음 소리 등이 어지럽게 엉켜서 들려왔다.

다행히 몇 분 뒤에 다시 불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시간은 마치 몇 시간이 지난 듯 길게 느껴졌다. 불이 켜지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는 칵테일 잔을 든 채 정전되기 직전에 서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존슨 대통령 내외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행사장은 다시 크게 술렁거



존슨 미국 대통령 내한 기념 우표

리며 혼란에 빠졌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테러’라는 단어가 동시에 떠올랐다. ‘누군가 고의로 정전 사고를 일으킨 후 미국 대통령을 납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를 즈음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소리. 한 여성이 정체모를 두려움에 실신하듯 털썩 주저앉았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 경호원, 호텔 책임자, 그리고 주변 참석자들. 또 몇 분의 길고 긴 시간이 흘렀을 때 행사장 벽 한쪽을 가리고 있던 커다란 커튼이 스르륵 열리더니 미국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존슨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미국 경호팀은 존슨 대통령이 투숙하기 수일 전에 호텔에 파견되어 시설 점검은 물론 대통령의 이동거리와 주위 환경, 소요시간 등을 철저히 점검했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신장에 맞게 침대 크기를 조절할 것과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색으로 벽지까지 바꿀 것을 요청했다. 호텔 주변에는 미8군 헌병들이 주야로 경계근무를 섰으며 통신시설까지 통제했다.

워커히호텔 담당자들은 미국 쪽의 철통 보안에 허를 내들렸는데 정작 놀랄 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존슨 대통령이 숨어 있던 두꺼운 커튼. 디너파티가 열린 코스모스홀에는 원래 커튼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뒤에는 벽뿐이어서 커튼을 달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미국 경호팀이 언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 통로를 만들고 이를 위장하기 위해 커튼을 달아 놓은 것이다. 즉, 존슨 대통령이 서 있던 바로 뒤



워커히 호텔. 건물 뒤편에 코스모스홀이 있다

에 유사시에 피할 수 있는 출입문을 미리 마련해 두고,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그 즉시 대통령을 커튼 뒤로 밀어서 문 밖으로 대피시켰던 것이다.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암흑 속에서 행해진 그 치밀함과 민첩성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파티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행사가 끝난 뒤 정전사고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모 신문사 사진기자가 220볼트용 마그네슘 라이트 장비를 120볼트(당시 우리나라 전압) 콘셉트에 꽂는 바람에 합선이 되면서 정전사태가 일어난 것이었다. 그 기자의 실수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별다른 문제없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또 다른 불길로 이어진 반도아케이드 화재

1970년 1월 17일, 이른 아침. 모두가 숨이불 속에서 곤한 잠에 빠져 있던 그 아침에 느닷없이 검은 장막을 찢어내기라도 하듯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놀란 사람들이 집밖으로 뛰어나왔을 때,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시뻘건 화염이 모든 건물을 집어삼킬 듯 맹렬히 타고오르고 있었다. 수은주는 영하 15도를 가리켰고 바람은 초속 4미터로 강하게 불고 있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을지로 입구에 있는 반도아케이드 상가였다. 1965년 한국 최초의 명품상가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건립된 반도아케이드는 박정희 대통령이 외화 획득의 주력 기지로 삼은 곳이었다. 또한 건물 4층을 한국관광공사가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최초 발화지점은 인접해 있는 팔레스호텔 신축공사장이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아케이드 2층 수예부 점포로 옮겨 붙었다. 화재 10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이와 동시에 경찰기동대와 관광공사 예비군이 긴급 출동했다. 그러나 초동 진화에는 실패했다. 바람이 워낙 강한데다 영하의 날씨에 소화전이 팡팡 얼어붙었던 것이다. 더욱이 베니어합판이 화재 지점을 에워싸고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았다.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 서울시장, 치안국장, 그리고 오재경 관광공사 총재는 발만 동동 구르며 타고오르는 불길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손에 손에 양동이를 들었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아침 9





되찾은 밤에 화려한 꽃을 피운 관광산업

236

관광산업 50년 이야기
다시 시작 이야기



1981년 11월 19일 밤, 여의도 전경련회관 19층의 중국음식점 ‘도원’으로 비장한 표정을 한 민정당과 민한당, 국민당의 중진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만장일치로 야간통행금지해제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금해제건의안을 통과시켜 정부에 보냈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미 계획한 대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1945년 9월부터 무려 37년간이나 계속되어 온 야간통행금지조치가 1982년 1월 5일 새벽 4시를 기해 마침내 해제되었다.

1982년 1월 5일 이전까지, 자정이 되면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이때부터 새벽 4시까지 사람들은 집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 시간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 관료나 경찰뿐이었다.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면 경찰서에 끌려가 새벽 4시까지 붙잡혀 있어야 했고 여인숙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경찰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여야 했다.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통금의 상징인 서대문 로터리의 육중한 바리케이드가 철거되었고, 빼앗겼던 시간을 되찾은 시민들은 밤공기를 만끽하며 거리를 누볐다. 1982년 2월 6일 서울극장에서 최초로 심야영화가 상영되었다. 개봉작은 안소영 주연의 ‘애마부인’이었는데 첫날밤, 1500석의 서울극장에 5000여 명의 관객이 몰리는 바람에 극장 유리창이 깨지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통금 해제의 이유로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실은 쿠데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 진짜 의도가 어디에 있었건 통금 해제는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게 사실이었다.

237

Section 15 | 국제지진? 국제공리!

..... 자정이 되면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이때부터 새벽 4시까지 사람들은 짐바꾸로 나오지 못했다. 이 시간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 관료나 경찰뿐이었다.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면 경찰서에 끌려가 새벽 4시까지 붙잡혀 있어야 했고 여인숙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경찰과 짝고 짝기는 추격전을 벌여야 했다.

통금이 해제된 직후의 서울 밤거리.
밤 12시 45분을 알리는 전광등과 남산 타워가 보인다



이전까지만 해도 통금으로 한국여행을 기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통금 해제 이후 외래관광객들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특히 일본 관광객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들은 금요일에 한국에 들어와 3일 동안 시간 제약 없이 여행하다가 일요일 오후에 돌아가는 이른바 ‘주말여행’이라는 새로운 관광풍속을 만들어냈다.

또한 통금 해제는 국내 관광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 여행이 급증하였고, 서울에서는 야간 관광과 심야영업이 활성화되는 등 밤낮이 없을 정도로 관광업이 성행하여 관광수입도 상당히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37년 만에 되찾은 ‘밤’은 말 그대로 불야성을 이루며 관광산업에도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었다.

호텔 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은 7성급이다.’, ‘그 음식점의 서비스는 7성급 호텔 수준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주변에서 이런 표현들을 들어봤을 것이다. 요즘에는 최고의 맛,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말할 때 ‘7성급 호텔’에 비유하곤 한다.

호텔을 선택하거나 평가할 때 가장 손쉬운 것은 호텔의 등급이다. 호텔의 등급은 별이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진다. 5성급, 6성급, 초특급, 준특급 등 사용되는 용어도 많아 헷갈리기 쉽다. 그렇다면 호텔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호텔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방식 등은 나라마다 다르다. 호텔 등급을 표기하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로 다르다. 먼저, 해외 호텔들은 일반적으로 별의 개수로 등급을 매기는데, 한국은 무궁화의 개수로 등급을 표시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등급을 매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호텔 브랜드별로 자체적인 기준으로 등급을 홍보하는 경우도 많다. 결론적으로, 호텔 등급 결정 방식이나 표시 방법은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 해외여행에서 숙소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호텔 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 우리나라의 모든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별도의 평가과정을 거쳐 등급을 부여받는다. 한국의 관광호텔은 특 1등급, 특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 모두 5등급으로 구분되며 무궁화로 표시한다. 특 1등급 호텔은 금색, 특 2등급 이하 호텔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특 1등급, 특 2등급은 무궁화 5개, 1등급은 무궁화 4개, 2등급은 무궁화 3개, 3등급은 무궁화 2개이다.

호텔업에 등록된 사업자는 신규등록을 하여 등급 결정을 받으며, 3년이 지나면 증·개축을 통하여 등급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현재 호텔 등급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 2곳이다. 이 기관들은 호텔 등급을 심사할 때 6인 이상의 각 부문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단은 규정된 호텔 등급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호텔의 등급을 심사한다. 심사 항목은 공용 공간 및 서비스 부문(205), 객실 및 욕실 부문(300), 부대시설 부문(195) 등의 3개 부문이다.

심사결과, 평가점수 합계가 만점의 90% 이상이면 특 1등급, 80% 이상이면 특 2등급, 70% 이상이면 1등급, 60% 이상이면 2등급, 50% 이상이면 3등급으로 결정된다.



충격적이고 황당한 서울 풍경

재미교포 3세인 김메이트랜드 씨는 하와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다. 1986년 무렵 학원 강사로 일본에 들어와 생활하다가 1987년부터 1년 반 동안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사진흥 자문역으로 근무했다. 그녀는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충격적인 광경들을 이렇게 회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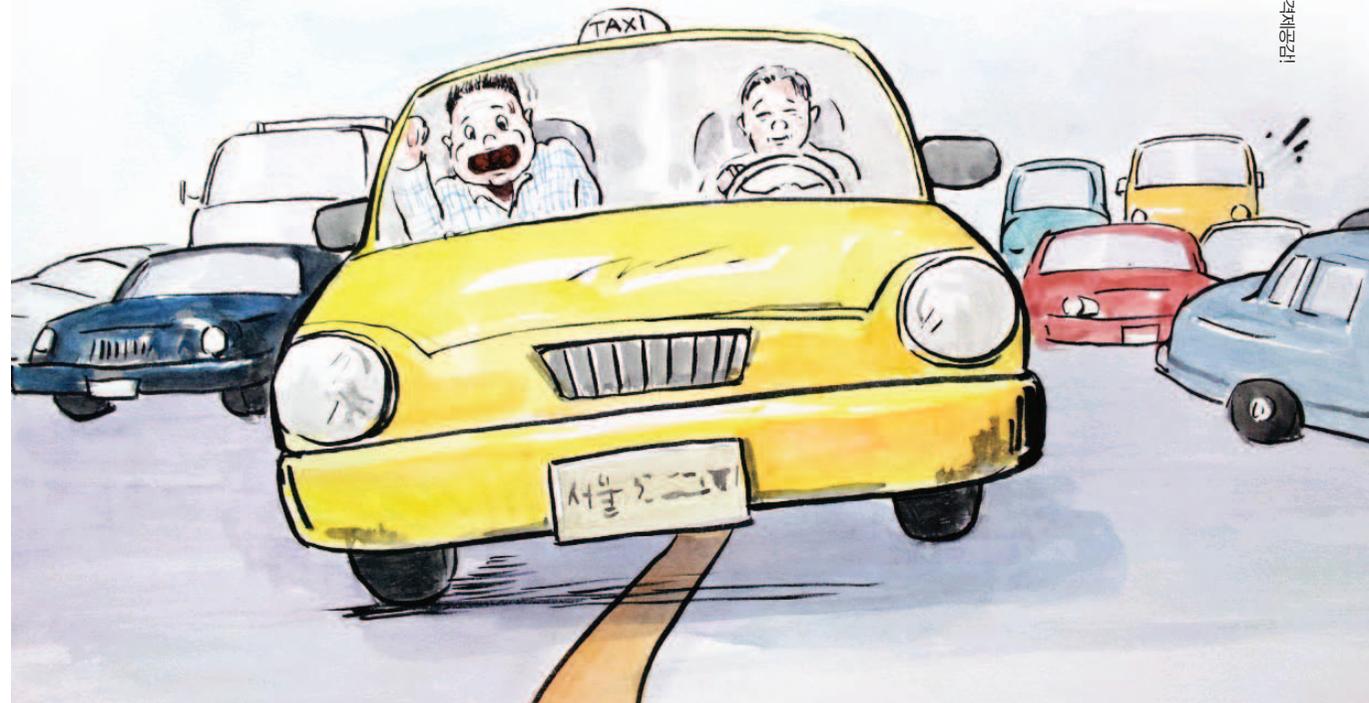
내가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을 처음 밟은 것은 1987년이였다. 1박 2일 정도 쉬었다가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며칠 더 머무르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인은 성격이 급하고 신경질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국의 첫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을 나서는 순간, 입국자를 환영하기 위해 나온 수많은 가족 친지들을 보며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공항에서 택시를 탔을 때 또 한 번 놀랐다. 택시가 시내로 진입했을 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질서한 교통, 그리고 택시에 안전벨트가 없다는 사실(좌석 밑에 치워져 있는 형식적인 벨트뽀)에 무척이나 당혹스러웠다. 택시의 곡예 운전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하다. 반면 택시 잡기는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 어디서든 손만 흔들면 택시를 탈 수 있었으니,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가용 승용차가 거리에 많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식당에서는 식탁 앞에서 가위로 고기를 잘라주는 여종업원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고, 냉면을 처음 접했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하는지 무척이나 난처했다. 한국인만이 즐겨 먹는 개고기에 대한 기억도 빠뜨릴 수 없다. 충격은 더욱 컸다. 시장에서 ‘죽은 개’들이 널려져 있는 광경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거리에서 떼지은 사람들에게 휩쓸리고, 미어터질 것만 같은 만원 버스, 전철 안에서 사람들에게 밀리는 것, 추운 날씨, 매캐한 공기, 트럭에 물건을 가득 싣고 골목길을 누비는 채소장수들의 시끄러운 마이크 소리 등은 참으로 적응하기 어려웠다. 내가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외국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나에게도 더욱 불편한 것으로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물론, 불편하고 나빴던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국기에 그려진 태극 문양과 고궁의 처마 디자인을 보며 한국은 상징주의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말에 TV를 통해 춘향전과 심청전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



..... 공항에서 택시를 탔을 때 또 한 번 놀랐다. 택시가 시내로 진입했을 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질서한 교통, 그리고 택시에 안전벨트가 없다는 사실(좌석 밑에 치워져 있는 형식적인 벨트뿐)이 무척이나 당혹스러웠다. 택시의 곡예 운전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하다.

었다. 특히 사계절이 주는 변화가 인상적이었는데, 하와이 날씨의 단조로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반면 한국의 사계절은 몸과 마음을 자극하고 새롭게 해주는 것 같아 부러웠다.

서울에 살다보니 첫인상과는 다르게 미국인들처럼 과격한 성질을 가진 한국인이 없다는 사실과 모두들 근면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 중에 쉬어야 할 시간에도 나라 전체가 생산적 활동으로 분주하여 여가를 즐길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하와이에서 가졌던 한국인에 대한 선입관은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억 한 가지. 한국관광공사와 근무 계약을 하고 처음 18층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백여 개의 책상과 백여 명의 직원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놀랐다. 좁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했고, 여기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나 한사람뿐이라는 사실에 조금은 외로웠다. 물론 주위의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했지만.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좋아한다. 내가 한국관광공사와 인연을 맺고 한국에서 보낸 17개월은 나에게 매우 값진 추억이었으며 내 자신이 한국 혈통이라는 사실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낀다. 더불어 아름다운 한국, 외국인이 다시 찾는 한국을 만드는 일에 한국관광공사가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과 내가 한 때 그 일원이었다는 사실에도 무한한 자부심을 갖는다.

김종필 씨가 증언하는 워커히 호텔 건설 이유

워커히 호텔은 1963년 4월 8일 개관할 당시 동양 최고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했다. 호텔 경영은 개관부터 한국관광공사가 맡아 오다가 1973년 민영화되었다. 그런데 워커히 호텔 건설 배경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씨의 증언이 있었다. 1986년 <월간조선> 12월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워커히 건설은 멜로이 유엔군 사령관하고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시작된 겁니다.

멜로이 대장이 ‘지금 일본에 우리 장병이 연간 3만 명씩 위로휴가를 가는데 사실 비상시에 지장이 있다. 한국 내에 미군을 위한 워커히 시설이 있다면 연간 3만 명이 일본에 쓸어 넣고 있는 돈을 여기 쏟아 놓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유사시에 비상소집을 하면 즉각 응소해서 신속하게 대비할 수도 있을 테고 하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여기서 만들면 당신이 장병들을 여기 머물게 할 수 있느냐?’했더니,

‘장병들이 만족할 만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한 게 워커히입니다.”



에일리언이 외계인이니까, 외국 관광객입니까?

- 일 시: 1990년 어느 봄날 오후.
- 장 소: 한국관광공사 사회의실
- 대담자: 나가미 마사토시
(국제관광개발 연구센터 연구조사부장)
데이비드 백스터
(한국외국어학원 영어 강사)
가네카와 수수무(TV西日本 PD)
- 사회자: 한국관광공사 사사 편찬 담당자



- 사회자 본 좌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담회의 주제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관광 서비스'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겪었거나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이 공항일 텐데 첫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 마사토시 공항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불만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십여 개국을 여행해보았지만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 데이비드 모든 수속이 빠르고 출입구를 빨리 찾을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권 수속하는 곳에 붙어 있는 'Alien'이라는 낱말을 보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에일리언'이란 단어가 원래 '외국사람'이란 뜻이긴 하지만 지금은 '외계 생물체'란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Foreign Passports'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자 대중교통 특히, 택시에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수수무 서울 택시의 횡포와 불친절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 일본 친구는 불친절한 택시기사와 바가지 요금 때문에 다시는 서울에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 직원이 서울에서는 택시를 타지 말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라고까지 충고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국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산과 대구를 관광할 때는 택시기사들의 친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가는 도중 몇 번씩 목적지를 재확인하고 거스름돈 이백 원까지 꼭꼭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영터리 서울 기사분들이 지방 기사분들의 마음씨를 본받았으면 합니다.
- 마사토시 저 역시도 한국 관광 도중 가장 나빴던 기억이 택시 서비스입니다. 기사들의 무례함과 승객의 허가 없이 합승하는 행위, 과속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야에는 미터기를 무시해 버리고 가까운 거리인데도 무조건 만 원 이상의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택시인 경우에는 대낮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데이비드** 저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서울 지하철은 너무 좋습니다. 역 이름이 영어로도 표시되어 있고 역마다 고유번호가 있을뿐만 아니라 노선별로 고유의 색깔이 있어 처음 방문하는 외국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뉴욕이나 도쿄처럼 ‘쾌속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보통 역에는 서지 않고 사람이 많이 타는 역에만 서기 때문에 멀리 가는 승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호텔 이용에는 불편 사항이 없으셨습니까?

· **마사토시** 체크인, 카운터, 룸 서비스, 식당 종업원들이 예의바르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종업원들이 고객에게 밝은 미소를 띠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 **데이비드**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의 관광호텔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호텔의 부대 시설인 디스코텍, 각테일 바, 사우나, 식당 등을 종종 이용하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편리할뿐더러 종업원들이 친절하고 영어회화 실력도 우수했습니다.

· **수수무** 저는 호텔뿐만 아니라 여관도 많이 이용해 봤습니다. 인천에 갔을 때에는 영종도에 있는 여관에 묵었고, 부산에서는 무궁화 네 개짜리 호텔에, 해인사에서는 보통 여관에, 동학사에서는 한식 여관에 묵었습니다. 이들 여관은 서울 호텔 못지않게 깨끗하고 친절하고 숙박료도 저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궁화 다섯 개짜리 호텔보다 낫다는 생각도 합니다.

· **사회자** 관광시설에 대한 주변 외국 분들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 **수수무**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소가 한국인들에게는 별 관심을 끌지 않지만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친절하게 외국어

로 안내해 줄뿐만 아니라 서울과 한국의 최신 지도를 무료로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관광안내소의 역할에 대해 제가 아는 관광객들은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 **데이비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박물관과 고궁인 듯합니다. 특히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 덕수궁 등은 옛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잔디밭, 숲, 연못들이 어우러져 한국 고유의 멋을 느낄 수 있었다고들 합니다. 입장료도 싸고 특히 영어나 일본어 등의 지원이 잘 되고 있어 관람에 불편은 없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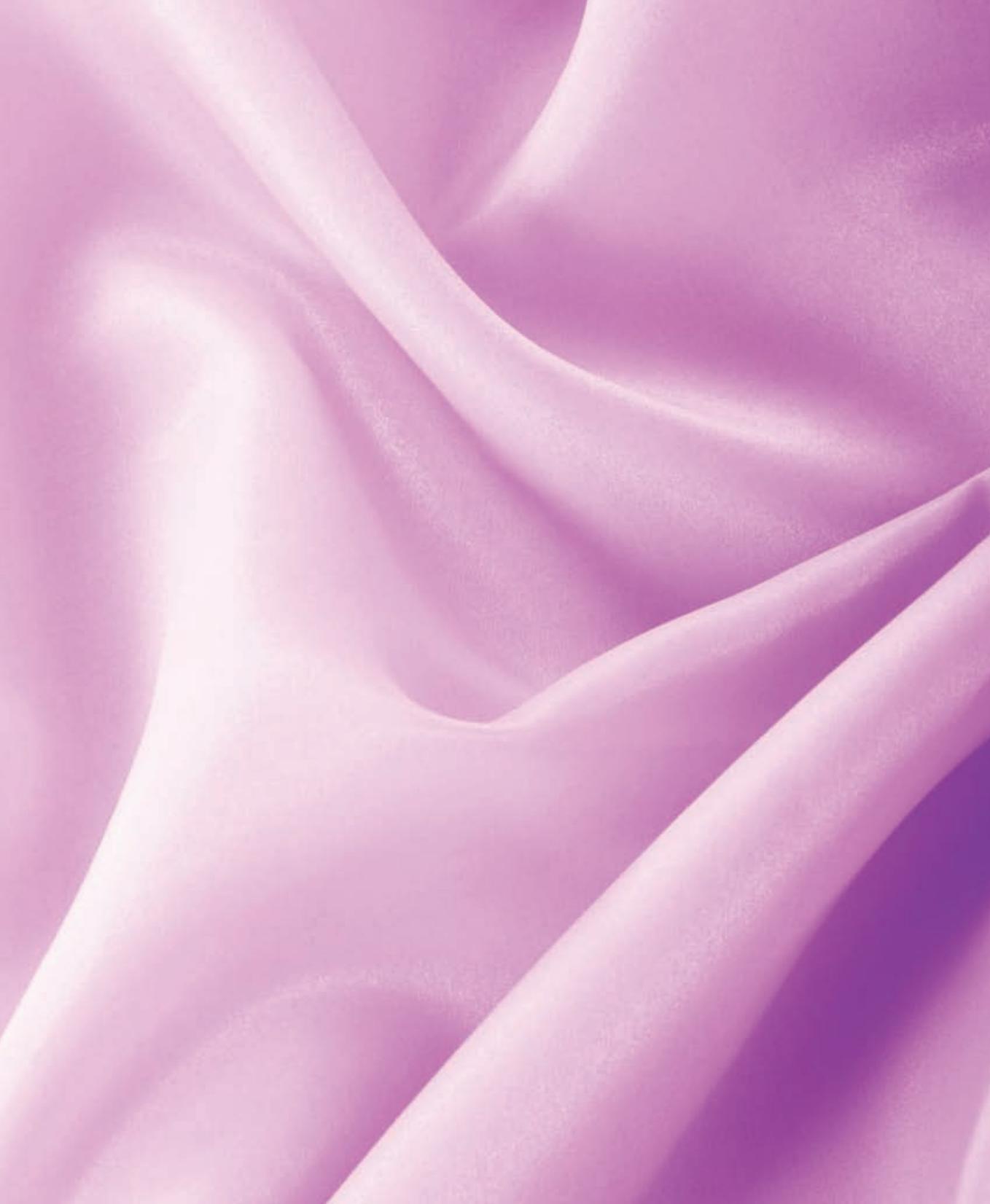
· **마사토시** 제가 만나본 일본 관광객도 같은 의견입니다. 민속촌, 고궁, 박물관 등은 꼭 방문해 볼만하다는 의견이었고 특히, 남산 ‘한국의 집’이나 쉼라톤 워커히 호텔에 대해서는 대단한 호평이 있었습니다. 반면 호텔이나 라운지를 제외하고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사회자** 그 외에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신다면요?

· **데이비드** 선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보면,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화장실 수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대체로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수도꼭지에서 더운 물이 안 나오고 비누, 수건, 심지어 화장지도 없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회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국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본 좌담회는 1990년 가을, 세 명의 외국인이 각기 한국관광공사에 기고한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불만 사항들은 대부분은 괄목할 만큼 개선되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 중 하나가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였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들을 한 자리에 부른다면 한국 관광 서비스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 Section [6]

이야기 속 숨은 역사



인디언클럽, 한국 관광업계를 주름잡다

1963년 4월 8일, 워커히호텔이 준공됐다. 이는 우리나라 호텔업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향후 우리나라 관광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기서 근무했던 인력들은 향후 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워커히호텔 야경

워커히호텔이 준공되기 전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호텔은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이었다. 그러나 이 호텔들은 숙박과 연회, 행사를 치르는 기능을 수행했을 뿐 휴식과 휴양 공간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주한 미군의 대부분이 휴가를 나오면 일본으로 출국하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주한 미군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휴양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춘 대단위 관광지인 워커히호텔을 준공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호텔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텔업계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적합한 인원을 정책적으로 선발했는데, 선발 기준이 독특했다. 선발 기준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지방의 중학교 졸업생 중 성적이 전교 5등 이내에 들어야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으로 한정되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장남을 뽑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장남은 대부분 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사회적 분위기가 장남을 타지에 나와 직장을 얻기보다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선발 기준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하에서도 워커히호텔에 도전장을 내기 위해 전국 8도에서 몰려든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가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유학까지 책임진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었다. 2차에 걸친 시험과 36: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인원은 최종 109명이었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스파르타식으로 철저하게 짜여진 일정과 시간에 맞춰 생활했다. 호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벨보이, 프론트, 웨이터 보조 등의 업무부터 차곡차곡 배우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이 아이들은 모두 햇빛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까만 작업복을 입고 있

..... 최종 선발된 인원은 스파르타식으로 철저하게 짜여진 일정과 시간에 맞춰 생활했다. 호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벨보이, 프론트, 웨이터 보조 등의 업무부터 차곡차곡 배우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이 아이들은 모두 햇빛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까만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인디언을 닮았다고 해서 워커히호텔 직원들은 모두 그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다.

었다. 그 모습이 마치 인디언을 닮았다고 해서 워커히호텔 직원들은 모두 그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모든 업무를 마치 군대처럼 엄하고 철저하게 교육받았으며, 일과가 끝난 저녁에는 20여 가지가 넘는 호텔 과목들을 공부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벅찬 일이었지만 이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호텔 업무를 습득해 나갔으며,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교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충명했을뿐더러 호텔업계에 인생을 걸 각오를 하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인디언이라고 불렸던 이들 대부분은 호텔업계에서는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다. 정부는 대학은 물론 유학까지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최고의 학력과 경력을 갖추었다.

워커히호텔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이들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광업계와 호텔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인디언 클럽’이라는 단체로 결속되어 업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과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온몸으로 부딪치며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해 온 ‘인디언 클럽’ 사람들은 이론과 실무를 막론하고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우리나라 호텔업계의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전국에 있는 각 호텔로 진출하여 제반업무를 교육시키는 호텔학교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관광’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던 시절, ‘인디언 클럽’ 사람들은 열정 하나로

호텔업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불모지와도 같았던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새카만 얼굴에 까만 작업복을 입은 ‘인디언’, 이들은 척박했던 환경 속에서 관광산업을 이끌어 온 견인차로서 우리나라 관광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내가 박지성 후원회장이라고?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의 일이다.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열광했고, 온 사회가 월드컵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시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나는 조선히텔에서 열린 월드컵 관련 행사에 초대되어 나갔다.

“저, 조흥규 사장님이시죠?”

“예, 누구십니까?”

“제가 박지성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순간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사실 그때까지 박지성 선수가 누군지 몰랐다. 국가대표 선수라는데 본 적도 없고 들어 본 기억도 없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며 박지성 아버지라고 하니 얼떨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기에 민망해서 간단히 대답하고 그냥 눈인사만 건네며 말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사장님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참 생똥맞은 사람이 아닌가? 처음 본 사람에게 좋아한다는 고백까지 하고 말이다. 그러나 내심 싫지 않았다. 나를 좋아한다는데 나쁠 건 또 뭐가 있겠는가 싶었다.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에게 되물었다.

“왜 절 좋아하십니까?”

“잘 싸우시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꺾꺾대며 웃는 것이다. 내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국회에서 싸우고 악을 쓰는 모습을 본 모양이다.

“제 고향이 전라도 고흥입니다. 조 의원님을 예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아이구 고맙습니다. 허허”

어색했지만 유쾌한 만남이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4강 신화를 이끌며 최고의 영웅으로 등극했다.

해가 바뀌어 박지성 선수 아버지와와 만남이 잇힐 무렵, 외신기자클럽에서 연락이 왔다. 외신기자들이 뽑은 축구선수로 박지성 선수가 뽑혔는데, 협력해준 사람으로서 대신 상을 수령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이다.

“제가 그 상을 왜 대신 받습니까?”

뜬금없는 소리에 되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더욱 황당했다.

“박지성 후원회 회장님이시라면서요. 박지성 선수 아버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얼떨떨했지만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수상식에 참석했다. 거기서 다시 박지성 선수 아버지와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를 건네고, 다짜고짜 따져 물었다.

“아니 내가 무슨 후원회장입니까?”

“제가 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말하더니 또 꺾꺾 웃는다. 지성이가 없으니까 대신 받아야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막상 생각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다.

“제가 조 의원님을 후원회 회장님이라고 했습니다.”

“후원회가 있었습니까?”

..... “저, 조홍규 사장님이시죠?”

“예, 누구십니까?”

“제가 박지성 예비되는 사람입니다.”

순간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사실 그때까지 박지성 선수가 누군지 몰랐다.

“없죠!”

“아니 내가 명색이 회장인데 회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그에게 웃으면서 따져 물었다. 그러나 되돌아 온 말이 더 걸작이었다.

“저 있겠습니까?”

나는 졸지에 회원이 한 명 있는 박지성 후원회의 회장이 되었다. 그 후로 우리는 급격히 친해져 각별하게 지내기 시작했다. 그와 자주 만나면서 박지성 선수의 인간적인 면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박지성 선수는 축구 실력만큼이나 인간 됨됨이 또한 훌륭했고,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생으로 통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일월드컵이 개최되어, 공사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박지성 선수의 후원회장이 된 것이다. 지금도 해외에서 활약하는 박지성 선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지며 어깨에 절로 힘이 들어가곤 한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 잘못해도 감옥 간다



북경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작은 제스처 하나가 해외에서는 나비효과처럼 엄청난 파장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이것은 각 지역이나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문한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떤 행동이 이 나라에서는 친근함의 표현이지만, 저 나라에서는 모욕적인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동 국가에서 상대방에게 발바닥을 보이는 행위는 아주 큰 실례가 된다. 또한 악수를 할 때 왼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작은 제스처 하나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밖에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는 황당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꽤 많다. 종교적 특성상 금기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곤혹을 치를 수도 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왼손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받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이슬람에서는 머리를 신성하게 여기므로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네팔이나 태국에서도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도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이슬람 국가와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아동 성폭행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집게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면 언짢게 생각하므로 삼가는 것이 좋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화 중에 허리에 손을 얹으면 화가 난 것으로 받아들인다. 여느 이슬람국가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파키스탄에서는 여성에게 카메라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여성들은 혼자 여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남성의 보호를 받으며 다니느냐 아니냐에 따라 파키스탄 남성의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는 인도 또한 이슬람 국가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인도 역시 악수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인도인들은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화장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나 인도의 공중화장실에는 아직도 휴지 대신 물로 씻어야 하는 곳이 많이 남아 있다.

네팔 역시 인도처럼 국민의 80% 정도가 힌두교를 믿고 있다. 여기서도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요즘에는 손가락 문화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물건을 가리키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네팔은 집 안까지 물을 끌어오는 상수도 문화가 발달되지 못해 공동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곤 하는데, 여성들은 빨래를 한 후 그곳에서 목욕이나 머리를 감는 경우가 많다. 긴 천과 같은 옷으로 온 몸을 감싼 채 머리를 감는데, 특히 낙후된 도시나 산간지역을 지날 때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광경은 네팔에서 자연스러운 생활방식이므로 그 근처를 지날 때는 몸을 닦는 여성들을 오래 바라보거나 멈추어 서면 안 된다.

네팔 사람들은 긍정의 표시를 할 때 머리를 아래위로 끄덕이지 않고 좌우로 흔들기 때문에 부정을 표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일본에도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대답하지만 일본에서는 '예(하이)'라는 말의 의미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예'라는 말이 반드시 말하는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교가 국교인 태국은 국왕을 모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기나 왕, 왕비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를 하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60대 남자가 국왕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체포되어 20년형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태국 형사법원은 그에게 국왕을 모독한 혐의에 대해 15년형을,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에 대해 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1997년부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길거리에 담배꽂초나 쓰레기를 버리면 2000바트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태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등도 담배꽂초나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깨끗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는 청결함과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며, 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공공 교통수단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는 과거 껌을 씹는 것조차도 불법이었다. 1992년부터 껌을 씹거나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법 조항 중 껌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껌을 씹는 것은 범법이 아니지만 '수입'의 의미를 확대해석하기 때문에 판매 목적이 아닌 그냥 개인 소지로 가지고 들어와도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껌 한 통을 사가지고 싱가포르에 들어오다 걸려도 불법이다.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으로 껌을 씹는 방법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껌을 씹기 시작해서 공항을 통과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2004년 미국-싱가포르 FTA 체결시 미국에서 껌 수입,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싱가포르는 의료용으로 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즉, 치과 의사가 처방을 해 주면 약국에서 껌을 살 수 있게 된 것인데, 문제는 껌을 파는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싱가포르에는 독특한 법들이 많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형(곤장제)인데, 스프레이로 주차장과 차에 낙서를 한 미국인 소년에게 공공기물 파손죄로 태형이 내려져 세계적으로 이 형벌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물을 내리지 않다가 잡혀도 벌금을 내야 하고, 집 주변에 물웅덩이가 있어도 벌금을 내야 한다. 물웅덩이에 모기 유충이 생겨 도시 미관과 위생을 해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각국의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고,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재래식 생활습관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 온 문화는 아직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가고자 하는 나라의 문화와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이를 보는데 화장실 문이 열린다면?



여성들의 섹시한 매력을 완결시켜준다는 하이힐, 하이힐의 유래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귀부인들이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보는 바람에 땅 위에 오물이 가득했다. 긴 드레스가 오물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 굽이 높은 신발을 신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하이힐의 유래이다.

또한 유럽 신사들이 여성을 동반할 때길 안쪽에 세워 에스코트하는 풍속도 화장실이 없어 아침마다 창밖으로 내버려지는 대소변을 피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화장실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의외로 화장실의 역사는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로마에서는 걸상식의 수세변소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유적을 통해 확인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성벽에 걸상식의 변소를 만들고 하수와 함께 배설물을 흘려버리거나 성벽 밖으로 바로 나가게 하였다.

근세에 이르러,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18세기 초부터 걸상식의 수세변소를 만들기도 했으나 서민 계급은 물론 궁전에서도 일반적으로 걸상식 변기와 요강을 사용하고 있어 아침이 되면 배설물이 도로와 같은 공공장소에 자주 버려졌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화장실도 있다. 고대 힌두교도들은 이미 기원전 3000여 년경에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유럽에서의 화장실 역사는 1만 년 전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일찍이 배설물의 독성을 잘 알고 있던 고대 스코틀랜드인들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있는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용무를 해결했다. 하지만 배설물을 집에서부터 씻어 내버릴 수 있는 수세식 배관 시스템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연안 오크니 섬 주민들이었다. 물론 오늘날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하수구가 돌집에서 개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더는 추위에 떨며 밖에서 용무

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정교하기로 치자면 크레타 섬의 코넛소스 궁전에 살았던 미노아 왕족의 화장실을 빼 놓을 수 없다. 이미 기원전 3000년에 미노아 왕족들은 시멘트로 틈새를 이은 수직 석제 파이프를 이용하여 물을 채우고 빼낼 수 있는 욕조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설이 점차 발전하여 오늘날과 같이 유약을 바른 토기 파이프로 바뀌었다. 이 화장실에서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편리한 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배관을 통해 왕궁의 배설물을 밖으로 빼낼 수도 있었다. 이때 머리 위로 수조가 달린 화장실도 고안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었으리라고 추측된다. 수조는 빗물을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가물어 비가 충분히 오지 않을 경우에는 길어온 물을 부어 사용하였다.

화장실 기술의 발달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1500년경까지 이집트 귀족들은 집안에 더운물과 찬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동관을 설치하였다.

근대적 수세식 변소는 급배수 설비를 도회지에 완비시키고부터이며, 20세기에 영국에서의 특허를 발단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화장실은 어떠할까? 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화장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편리해졌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나라와 지역에 따라 형태나 시설에 큰 차이가 있으며,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화 역시 나라나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중국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화장실 때문에 당황한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문화적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기가 어렵다. 심지어 변비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각 나라의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앞서 말한 중국에는 공중화장실에 문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도시를 비롯한 관

..... 중국에는 공중화장실에 문이 없는 경우가 많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화장실에 들어서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칸과 칸 사이만 막혀 있을 뿐 앞이 훤히 트여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한 줄로 나란히 두세 개의 화장실이 이어져 있는 곳도 있다.

광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는 문이 달려 있지만,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화장실에 들어서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칸과 칸 사이만 막혀 있을 뿐 앞이 훤히 트여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한 줄로 나란히 두세 개의 화장실이 이어져 있는 곳도 있다.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라 그냥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갑자기 신호가 오는 경우는 정말로 난감하다. 특히 중국은 기름기 있는 음식과 고기가 많기 때문에 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곳에 들어가서 볼일을 볼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옆 사람이나 앞사람과 인사를 하게 되는 끔찍한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 화장실에 현지인들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외국인들과 마주쳤거나 심지어 일행과 맞닥뜨렸을 때는 차라리 변비에

걸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민망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양산이나 가방 등으로 최대한 몸을 가리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중국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식당이나 쇼핑센터 등의 화장실을 제외하고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이기 때문에 동전을 준비해야 하고, 화장지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동남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화장실 표시

..... 이런 곳에 들어가서 볼일을 볼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옆 사람이나 앞 사람과 인사를 하게 되는 끔찍한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

유럽의 화장실도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잔돈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는 무료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는 이런 곳에도 화장실을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어 이용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용료를 받는 이유는 유럽은 물속에 녹아 있는 석회성분 때문에 쉽게 화장실 배관이 막혀서 배관을 자주 교체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유럽여행 중에는 무료 화장실을 발견했을 때 무조건 들르는 것이 좋다. 무료도 무료지만 유료 화장실도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말 화장실 찾기가 힘들다. 시내 중심부에서는 노상에 설치된 화장실을 가끔 볼 수 있으나 주택가 쪽으로는 화장실 찾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있어도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곳도 많다.

유료 공중화장실은 디자인도 세련되고 화장실 안도 깨끗하고 편리하게 꾸며져 있다. 공중화장실은 한 사람 이용할 때마다 자동세척을 하는데, 시간이 만만찮게 걸리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에서 줄을 섰다면, 표정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프랑스의 공중화장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시간제한이다. 일부의 공중화장실이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곳이 있다. 볼일 보는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황당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럽 중에서도 특히 독일을 여행하는 남성들은 화장실을 이용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독일에서는 남성들이 소변을 볼 때 좌변기에 앉아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입식변기일 경우에는 서서 볼일을 보겠지만, 좌변기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앉아서 볼일을 본다.

독일의 한 프로그램에서 남성이 좌변기에서 서서 소변을 볼 때 어디까지 소변방울이 튀는지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좌변기는 물론 선반에 있는 칫솔과 비누에까지 소변이 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남자들도 좌변기에서 소

변을 볼 때 앉아서 보게 되었고, 지금은 유럽권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좌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 좌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논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서서 소변을 보지 말라는 표지판이나 'Bitte im sitzen pinkeln'이란 문구를 보면 반드시 좌변기에서 앉아서 볼일을 보는 것이 그 나라의 화장실 에티켓이다.

일본의 3대 정원 중의 하나인 가이라쿠엔은 매화꽃으로 유명하다. 공원 입구엔 운치 있는 목조가옥이 자리 잡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이 가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곤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건물은 공중화장실이다. 이 화장실은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내부 또한 깨끗하고 시설도 최고급 수준이다.

일본에는 이처럼 한껏 멋을 내고 첨단시설을 갖춘 공중화장실이 많다. 수도꼭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청동 용머리로 되어 있고, 손을 내밀면 센서가 작동해 입에서 물이 흘러 나온다. 항균·탈취형 변기에 환기장치까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려도 전혀 악취가 풍기지 않는다.

일본의 화장실이 모두 깨끗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결과 위생을 중요시하는 일본인들에게 화장실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대상이다. 큰 빌딩의 화장실에는 대부분 비데, 센서식 세면기, 공기청정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도쿄 중심가의 카페나 레스토랑에 있는 화장실도 일류다. 맛이나 분위기는 기본, 이제는 화장실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반 평 남짓 되는 공간에는 장미가 꽃혀 있고 조그만 분수가 흐르며,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말레이시아는 '비데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이다. 여기서 '비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데'가 아니다. 말레이시아의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는 곳이 많다. 대

신 변기 옆쪽에 있는 수도꼭지에 호스를 하나씩 붙여 놓았다. 이것이 바로 수동(?)으로 움직이는 '말레이시아식 비데'이다. 간혹 호텔에도 이런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보통 용변을 본 후 이 호스를 이용해 뒤치리를 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토록 터부시하는 '왼손'을 사용하게 된다.

이 '비데'는 성능이 꽤 좋은 편이다. 호스의 물줄기가 너무 셀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조절을 해야 한다. 만약 무턱대고 수도꼭지를 열었다간 옷이 다 젖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관광지에는 휴지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시골로 가거나 공중화장실에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동식 비데'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미리 휴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로 여행을 갔다면 화장실 갈 때 반드시 휴지를 준비하는 것이 뜻밖의 '봉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몽골에 가면 좀 더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시골 지역에는 대부분 화장실이 아예 없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큰 화장실이 있다. '자연'이라는 화장실. 드넓은 초원 전체가 화장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화장실에 간다'는 표현을 남자는 '말 보러 간다'고 하고, 여자는 '꽃 따러 간다'고 한다. 몽골의 남녀들은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광활한 초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큰 도시나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에는 화장실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깨끗하지는 않지만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만약 여행을 통해서 가게 된다면 화장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브라질에서 화장실은 부의 상징이다. 집에 화장실이 몇 개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질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의 집에는 화장실이 두 개 이상은 있는데, 최소한 방 두 개 당 화장실 하나쯤은 설치되어 있다. 30평 아파트 정도의 집에는 보통 서너 개의 화장실이 있고, 작은 호텔방에도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다고 한다.

잘 사는 집에는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으며, 손님용 화장실은 따로 마련되어 있다.



호화로운 화장실 인테리어

심지어 도우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을 정도다. 이 정도면 브라질 사람들의 화장실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불결한 화장실이었다. 한국관광공사는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사업에 착수했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전국 화장실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화장실 BEST 5, WORST 5' 선정사업도 함께 실시했다.

1999년 들어서는 2001 한국 방문의 해, 2002 월드컵 등 대형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공중화장실 BEST 5, WORST 5 사업을 확대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화장실 문화 개선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가 확산되었고,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만 사례가 급격히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나 철도 역사, 국립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은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드림동으로 떠다 버린 고급 와인



1961년 워커히호텔이 건설된 이후 1963년 4월 본격적인 개관을 앞두고 한국관광공사 직원들은 세계 각국에서 직수입한 수많은 기자재와 식음료를 정리하느라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 양은 수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실로 엄청난 양이었다. 수입된 기자재들은 도착되는 즉시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고, 식음료 재료도 적재 적소에 분산 보존되었다. 그 중에 위스키, 브랜디, 꼬냑, 샴페인, 와인, 기타 소프트 드링크 등의 주류와 음료가 수백 상자씩 지하 저장 창고에 입고되었다.

그런데, 당시 창고 담당 직원은 각 주류의 특성이나 저장 습도, 온도, 보관 요령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 그저 주류별로 분류하여 한쪽에 쌓아 놓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몇 년 지나지 않아 주류 창고에 보관해 오던 주류들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심각한 주류는 와인이었다.

어느 날 주류 보관 상태를 점검하던 김 모 대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 모 과장에게 말했다.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와인 병 안에 이상한 벌레 알 같은 것이 떠다니는 데요?”

“어, 그러게. 와인이 상했나? 다른 상자들도 열어봐.”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수 백 병에 이르는 대부분의 와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유물들이 발견된 것이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결국 ‘알 수 없는 어떤 요인으로 와인이 전량 변질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많은 와인을 어떻게 하죠?”

“별 수 없지. 뚜껑 따서 폐기 처리하는 수밖에.”

행정 절차를 밟아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까지 촬영한 후 코르크 마개를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코르크 스크류 역시 지금처럼 품질이 좋거나 편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터라 마개 제거 작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십여 명의 사람



..... 코르크 마개를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십여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킁킁거리며 한 나절을 다 보내고, 저마다 손바닥에 물집까지 잡히고 나서야 끝이 보였다. 버려진 코르크 마개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을 때, 이 희한한 광경을 멀리서 목격한 한 외국인이 동행하던 한국관광공사 간부에게 물었다.

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킁킁거리며 한 나절을 다 보내고, 저마다 손바닥에 물집까지 잡히고 나서야 끝이 보였다. 버려진 코르크 마개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을 때, 이 희한한 광경을 멀리서 목격한 한 외국인이 동행하던 한국관광공사 간부에게 물었다. 간부 역시 이 무슨 기절초풍할 일인가 싶어 나중에 직원을 불러 상황을 듣고 나서야 담당 직원의 무지로 인한 실수임을 알았다.

당시는 '와인'이라는 단어조차 낯설었던 1960년대 초반이었다. 와인을 창고에 저장하거나 영업장에 비치할 때 케이스와 병을 눕혀서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과 주기적으로 돌려주어 코르크 마개가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창고 담당 직원은 와인을 세워진 상태로 박스 채 보관하였고 이 때문에 코르크 마개가 말라 부서지면서 부유물이 발생했던 것이었다.

원인은 밝혀졌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설령 마개가 제거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

한들 부유물이 떠 있는 와인을 고객에게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한편 공사 간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있던 그 시각.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코르크 마개 제거 작업을 완료한 직원들은 어깨와 허리 근육을 풀며 커다란 드럼통에 와인을 따라 부었다. 이제 남은 일은 드럼통을 내다 버리는 일뿐이었다. 그 때 한 직원이 와인 맛을 조금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과장님, 와인의 맛과 향이 그대로인데요?”

“그래? 김 대리 컵 하나만 가져와봐.”

이 과장이 한 잔 마시고, 앞 사람이 한 잔 마시고, 그 옆을 지나가던 직원이 와서 한 잔 마시고, 어느새 수많은 직원들이 드럼통을 에워싼 채 주저니 받거니 해가며 너도 나도 와인을 퍼 마시기 시작했다.



똥파리의 소속은 반도호텔인가, 서울시인가?

김일환 총재 재임시절(1965.6~1970.3)의 일이다. 그는 평소 네모난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8대 2로 가르마를 탄 백발을 멋지게 뒤로 빗어 넘겼다. 단정한 백발과 흰한 이마, 그리고 각진 턱 선에서 풍기는 총재의 인상은 매우 단호하고 강단이 있어 보였다.

어느 여름날 반도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총재 주관 행사가 있었다. 직원들과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시작되었다. 실내 분위기는 매우 차분하고 무거웠다. 김일환 총재의 인사말이 시작되자 모든 참석자들의 눈과 귀는 총재에게로 쏠렸다.

그때 커다란 똥파리 한 마리가 총재의 이마에 살포시 앉더니 앞다리를 비벼대는 것이 아닌가. 총재는 머리를 살짝 흔들며 파리를 쫓고는 계속해서 인사말에 열중했다. 그런데 쫓겨난 파리는 멀리 도망가지 않고 총재의 머리 위를 몇 바퀴 선회하더니 이내 총재의 이마에 다시 앉았다. 총재는 신경질적으로 팔을 휘둘러 파리를 쫓았고, 날아갔던 파리는 다시 그 자리를 정확히 찾아 앉았다. 이쯤 되니 회의장 여기저기서 쿡쿡거리며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총재는 잠시 인사말을 멈추고 헛기침을 하며 참석자들을 둘러보았다. 그 눈빛만으로도 주변은 금세 환기되었고 인사말은 다시 이어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인사말



이 시작되자 어디 숨어 있었는지 커다란 똥파리는 다시 날아와 총재의 이마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원고를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인 탓인지, 백발 때문이었는지 똥파리는 유독 크고 검게 보였다. 총재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인사말을 마무리하기는 했으나 노여움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총재는 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인사과장을 불러 엄히 명했다. 호텔 총지배인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대기발령을 내린 것이다. 총지배인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소식을 들은 총지배인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 똥파리가 반도호텔 파리라면 내가 책임질 만도 하겠지만 그 놈은 분명 서울시 파리일 겁니다. 그러니 방역을 허술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장한테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곱어버린 지갑

니이무라 미노리 씨가 한국을 찾은 것은 서울올림픽을 3개월 여 앞둔 1988년 6월이었다. 니이무라 씨는 남편과 함께 지인들을 만나 경주, 부산 등지를 관광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에 올라 올림픽 주경기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일본 귀국을 하루 앞둔 그날 저녁, 2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니이무라 씨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날의 일을 니이무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다.

“지갑이 없어졌어!”

부산에 사는 옛 친구를 18년 만에 만날 수 있었던 한국 여행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여행 가방과 양복 주머니를 살살이 뒤져 보았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다. 올림픽 주경기장을 구경한 후 쇼핑을 할 때 북적이는 상점 안에서 떨어뜨린 게 분명했다.

“다 끝난 일이야. 그 혼잡한 상점에서 어떻게 지갑을 찾겠어. 잊어버리자고.”

남편은 가망 없는 일이라며 체념했다. 그러나 나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남편과 같이 호텔 프런트에 분실신고를 했다. 그런데 노트를 펴고 우리 이야기를 들던 프런트 매니저가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방금 전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니이무라 씨 들어왔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지갑을 주었는데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다고요.”



.....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젊은 경찰은 남편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곤 습득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습득자는 이 씨라는 분이였다. 간단한 신원 확인을 하고 지갑을 무사히 돌려받았다. 현금도 그대로 들어 있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카피!'라는 소리가 들렸다. 신분증이나 메모지를 복사해 달라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경찰이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내밀며 '드십시오'하는 데 깜짝 놀랐다. 경찰이 외국 여행자인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고 게다가 커피까지 대접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마음 속까지 따뜻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작별인사를 했는데 경찰은 우리들을 차까지 안내해 주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탄성을 지르며 지갑을 찾으러 가기로 했다. 매니저는 우리를 위해 일꾼을 잘 하는 직원을 붙여주고 호텔 차도 준비해 주었다. 한강을 따라 흐르는 서울의 야경은 참으로 근사했다. 올림픽 주경기장 동문 경비소에 도착하니 떠들썩했던 한낮의 풍경은 사라지고 무거운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땅바닥을 내딛는 우리 세 사람의 구두 소리가 크게 울렸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젊은 경찰은 남편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곤 습득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습득자는 이 씨라는 분이였다. 간단한 신원 확인을 하고 지갑을 무사히 돌려받았다. 현금도 그대로 들어 있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카피!'라는 소리가 들렸다. 신분증이나 메모지를 복사해 달라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경찰이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내밀며 '드십시오'하는 데 깜짝 놀랐다. 경찰이 외국 여행자인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고 게다가 커피까지 대접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마음 속까지 따뜻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작별인사를 했는데 경찰은 우리들을 차까지 안내해 주었다. 관광버스 안내원에게 배웠던 단어 '감사합니다'가 나도 모르게 연신 입

에서 흘러나왔다. 손을 들어 배웅하는 경찰을 뒤로 하고 다시 호텔을 향해 밤거리를 달렸다. 이국땅에서 받은 생각지도 못했던 친절과 따뜻한 응대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며 호텔에 도착하니 벌써 밤 11시가 지나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습득자인 이 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전하지 못한 채 다음날 서울발 나리타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 곧바로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과 엇갈려서 이 씨가 보낸 팩시밀리가 남편 회사로 왔다.

<당시 지갑을 주워, 올림픽 주경기장 동문 경찰에 신고했으니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명함을 한 장 빼서 회사 주소로 연락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세심하게 신경 써 준 이 씨의 인격에 다시금 감동했다.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이번 여행은 3박 4일간의 숨 가쁜 여정이었지만 많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습득자로부터 경찰, 한국관광공사, 호텔로 신속하게 이어져 제 때에 지갑을 찾을 수 있었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한국 시민과 관계 기관의 수준 높은 도덕성,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놀라운 시스템과 우수한 사무처리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건이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올림픽에 한층 더 친근감을 느꼈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기의 스포츠 제전이 평화롭게 그리고 성황리에 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진짜만 비칠비칠 흐린 루이 암스트롱

280

관광공사 50년웅 이야기하다



관광공사 초대 총재인 신두영 선생은 1946년부터 공직을 시작하여 국무원사무처 차장, 관광공사 총재, 총무처 차관, 대통령사정담당특별보좌관, 감사원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1976년 감사원장에 취임하여 감사업무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80년 퇴임 후 향리인 공주에 내려가 원예와 농사에 전념하다가 1990년 향년 72세로 별세하셨다. 신두영 초대 총재가 별세하시기 몇 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 일부를 정리하였다.

제가 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은 1962년 4월인데 그때는 관광공사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법적인 절차 등 관광공사 설립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같은 설립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정식으로 창립되었는데 우선 관광공사가 해야 할 일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워커히를 인수해서 완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관광공사는 한마디로 한국 관광의 발전을 위해 세워진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법안인 관광공사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사실 시행령은 없었습니다. 관광공사법 시행령은 그 뒤에 조직, 기능, 예산 등의 내용을 담아 제가 직접 고안해서 교통부에 보고했던 것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크게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부족이었습니다. 관광공사가 처음 맡은 큰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커히호텔 건설이었는데 한국의 기술자들은 그런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쇼 무대니 조명 시설이니 하는 특수한 고급 문화 시설을 갖춘 호텔 건립이라 더욱 더 어려웠습니다.

둘째는 자재난이었습니다. 호텔 건설에 쓰이는 고급 자재가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 외국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리석은 이태리에서 수입했고 티크나 합판 같은 자재도 거의 다 외국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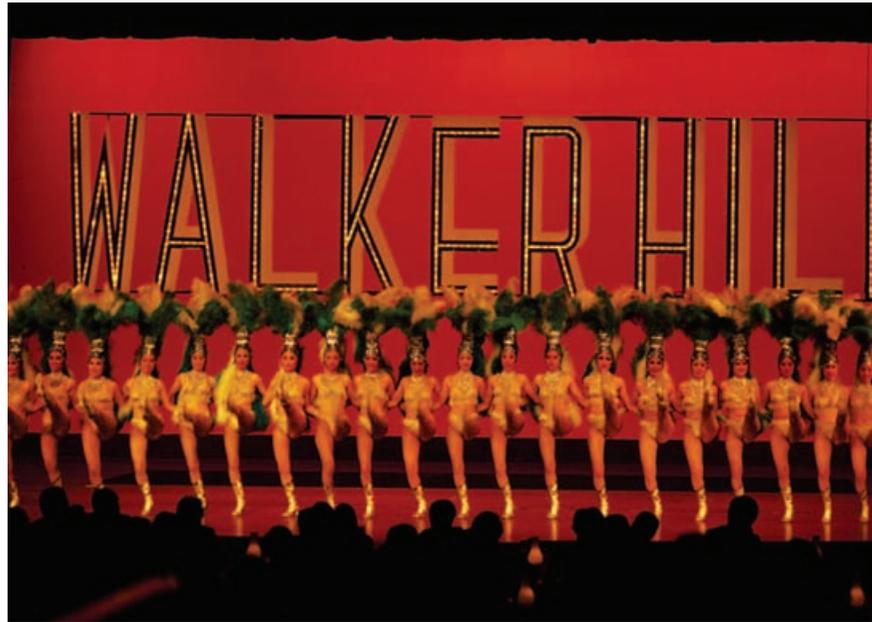
281

Section [6] 이야기 속 숨은 역사

셋째는 자금난이었는데 관광공사가 처음 세워질 때는 자본이 따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관광공사는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하기도 했고 일부는 차입 형식으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자니 자금난이 심각했습니다.

1960년 초반 정부가 국가 전반에 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산업을 중요 사업으로 책정하면서 관광공사 설립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한국의 중요 기간사업체인 포항제철만큼이나 관광공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한국이 관광산업에서 결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국제적인 교통망이 조금 더 일찍 정상화되었다면 한국의 관광산업이 빨리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광산업의 필요성을 일찍 간파하기는 했어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관광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워커힐을 건설할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워커힐 초창기에 공연하던 워커힐쇼

.....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인 루이 암스트롱이 내한하여 15일 동안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장관을 비롯한 직급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인지 아무리 연주가 훌륭하다고 생각해도 전혀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청중의 이런 무심한 반응 때문에 루이 암스트롱은 진땀만 뻘뻘 흘렸고 저는 초조했습니다.

워커힐을 개관한 뒤 여러 귀빈을 모시고 파티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SHOW>잡지 기자 한분이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 기자에게 거꾸로 워커힐에 와서 느낀 점을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자는 '그만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만하면'이라는 말이 사실 좀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기자는 자기가 호텔 개관식에 많이 다녀왔다고 하면서 사위하려고 찬물을 틀었는데 갑자기 더운 물이 칼칼 쏟아져서 등을 데인 사람이 많았는데 워커힐엔 아직 그런 적이 없으니 그 정도면 잘 지은 게 아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수준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한 번은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인 루이 암스트롱이 내한하여 15일 동안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장관을 비롯한 직급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인지 아무리 연주가 훌륭하다고 생각해도 전혀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청중의 이런 무심한 반응 때문에 루이 암스트롱은 진땀만 뻘뻘 흘렸고 저는 초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그를 귀빈으로 대접하고 가는 곳마다 경찰이 경호하고 팬들의 사인 공세에 시달리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호도, 시달림도 전혀 없고 단지 사장이 혼자 나와서 '수고했다'고 악수나 청했으니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 공연을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직 한국에는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광산업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사임을 표하고 관광공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삿짐, 18년 동안 11번이나 싣다



“국영기업체 중에서 한국관광공사 만큼 전국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관광공사의 사옥은 창립 이후부터 18년 동안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5년, 다동 사옥을 매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당시 장경희 본부장의 말이다. 1962년 6월 26일 창립한 관광공사는 신문로 고려빌딩 3층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몇 주 뒤인 7월 4일 태평로 그랜드빌딩 2층으로 이사하면서 번듯한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는가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듬해인 1963년 1월 15일 퇴계로 대한생명회관으로 다시 이전하면서 고달픈 셋방살이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공사가 거쳐 간 빌딩들은 그랜드빌딩 이후에 안국동 걸스카우트빌딩, 을지로 반도아케이드빌딩, 반도호텔 별관, 반도호텔, 인사동 흥익빌딩, 그리고 1980년 2월 퇴계로 극동빌딩까지 18년 동안 무려 11차례나 서울의 동서남북을 전전했다.

“흔히 가장 큰 서러움으로 ‘집 없는 서러움’을 꼽곤 하는데 관광공사의 재산과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부장직을 두 번이나 역임한 저로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사옥을 갖지 못한 서러움을 심하게 겪었으며 한편 일말의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건으로서는 국영기업체가 사옥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장경희 본부장이 말하는 사옥 매입의 어려움은 이리했다. 첫 번째, 사옥을 마련하는데 드는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고 설령 자금이 있 다손 치더라도 관광공사의 기능에 부합하는 위치와 규모를 갖춘 건물을 찾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사옥보다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러다가 1984년 7월 경, 공사의 중장기 개발계획과 자금소요액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여유자금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88서울올림픽 개최에 대비하여 시내 중심지에 외국인을 위한 종합관광안내센터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서울시내 중심에 사옥을 마련하고 그 안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개설하여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관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자는 쪽으로 중론을 모았다.

사옥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자 이후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면밀한 조사 결과 네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영동 관광교육원 부지에 사옥을 신축하는 방안, 코엑스 건설계획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롯데건설이 신축하여 산업은행

이 사용하고 있던 다동빌딩을 매입하는 방안, 그리고 서울역 민자역사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었다. 공사는 다각적인 분석, 관계부처와 협의,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다동빌딩 매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막상 빌딩 매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자 예상치 못했던 걸림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재벌그룹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따른 오해와 주위의 시기, 질시 등이 사옥 마련의 발목을 잡았다. 더 이상의 진척을 이루지 못한 채 답보 상태가 길어지면서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모든 오해와 위협에 과감히 맞서겠다는 하대돈 사장의 결단과 손수익 교통부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을 얻으면서 사옥 마련을 위한 사업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업 타진 1년 만에 그렇게도 원하던 사옥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근 사반세기 동안의 남의집살



청계천 변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다동 사옥

..... 1962년 6월 26일 창립한 관광공사는 신문로 고래빌딩 3층에 임시사무실을 설치 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몇 주 뒤인 7월 4일 태평로 그랜드빌딩 2층으로 이사하 면서 번듯한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는가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듬해인 1963년 1월 15일 퇴계로 대한생명회관으로 다시 이전하면서 고달픈 셋방살이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 다. 관광공사가 거쳐 간 빌딩들은 그랜드빌딩 이후에 안국동 걸스카웃빌딩, 을지로 반도아케 이드빌딩, 반도호텔 별관, 반도호텔 인사동 홍익빌딩, 그리고 1980년 2월 퇴계로 금동빌딩 까지 18년 동안 무려 11차례나 서울의 동서남북을 전전했다.

이를 청산하고 1985년 6월 26일 창립기념행사를 신사옥 강당에서 성대하게 개최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게 된 것이다.

그 후로부터 27년 지난 지금. 본사 건물 앞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현관 앞 T2 마당 은 매주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또한 한국관광학회, 지자체 등 관 광 관련한 업체, 기관, 기구 등이 본 사옥에 입주하여 관광공사와 함께 '한국 관광' 발 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오는 2014년 강 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사옥을 이전한다. 이는 창립 이후 열두 번째 사옥으로써 이곳에 서 관광의 역사를 새롭게 열게 될 것이다.



강원도 원주에 건립될 한국관광공사 신사옥 조감도

한국관광공사가 걸어 온

50년의 길, 대 이슈



1 공사법 제정과 국제관광공사 창립

1960년대 초에 들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관광진흥시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1962년 4월 18일 국제관광공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두 달만인 6월 26일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주도할 실질적인 최초의 정부 산하 기구인 국제관광공사가 탄생했다.

2 공사 내 개발과 신설

1962년 7월 4일 최초의 직제가 확정되면서 조직체계 구축과 인원 확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업무부 내에 개발과를 신설하여 국내 관광자원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 자원개발계획, 생활환경 개선, 민간 관광사업체와의 협조 등 관광산업 진흥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3 조선호텔과 반도아케이드 운영

설립 직후 운영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1963년부터 국영업체를 인수하기 시작하여 대한여행사에 이어 정부 직영 관광호텔인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을 인수하고, 아리랑택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수익사업을 본격화했다.

4 워커히호텔 인수

1961년 정부는 외국관광객 유치에 통한 관광수입 확대를 위해 종합휴양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춘 대단위 관광지 조성에 착수했다. 이런 목표 아래 1962년 5월 워커히호텔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때마침 창립한 공사는 1963년 1월 1일 워커히호텔을 인수한 후 4월 8일 준공을 이끌었다.

5 보잉보고서 발간

1973년 3월 교통부는 관광조사 전문용역회사인 미국의 보잉사에 한국 관광시장에 대한 분석을 용역 의뢰했으며, 이후 보잉사는 7개월 동안의 작업을 거쳐 1974년 2월 '보잉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관광 여건을 중점적인 조사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국 관광의 성장기 개발전략을 제시했다.

6 특정외래품판매소

1962년 11월 1일에는 그동안 교통부가 운영하던 특정외래품판매소 중앙영업소를 인수했다. 정부는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1961년 9월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을 제정하여 주류와 화장품 등 특정 외국제품의 시장 판매를 금지시켰는데, 특정외래품판매소는 이때 주한 외국인의 쇼핑편의를 제고하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면세점과 같은 형태였다.

7 홍콩 선전사무소 개소

1969년 7월 진흥이사제도를 신설하면서 일본 도쿄에 최초로 해외지사를 개설한 공사는 1970년 10월 5일 홍콩, 11월 9일 샌프란시스코에 선전사무소를 각각 개설하여 해외 거점을 확충했다. 이 두 선전사무소는 정부의 관광시장 다변화 시책에 부응하며 활발한 관광진흥 활동을 펼쳤다.

8 전국 관광민예품경진대회 개최

197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립중앙공보관에서 제1회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출계약 체결액 35만 달러, 전시장 판매수익 약 95억 원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 우리나라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한국자원총람〉을 발간하는 등 수출 및 관광 진흥의 주역으로 자리잡았다.

9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정 /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

정부는 1975년 4월 적극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단지 조성 위해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때 공사의 기본업무에 관광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이 발효되자, 8월 1일 자회사인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보문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관광단지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0 경주호텔학교 개교

관광업계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77년 6월 27일 경주호텔학교를 개교하여 관광인력 양성과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했다. 호텔학교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했으며, 개교와 동시에 1년 과정의 4개 호텔종사원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교육의 질적·양적 확대를 이루어갔다.

11 제주중문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1977년 12월 19일 중문단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1976년 10월부터 실역동 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여 1977년 12월 31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 두 사업은 관광지 개발의 사례가 거의 없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도적 개발사업으로서 좋은 선례를 남겼다.

12 외래관광객 100만 명 돌파

1978년 11월 25일,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외래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음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역사의 새로운 기념비를 세웠다. 정부의 정책과 공사의 열정이 세운 값진 이정표로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관광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 일이자 우리나라도 관광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시한 일이었다.



13 국제회의부 신설

외래객 100만 명 시대, 제28차 PATA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1979년 7월 국제회의부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국제회의 유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팀이자 한국 최초의 컨벤션 부로(Convention Bureau)였다.

14 지방 호텔 합작 투자(7개 호텔)

1970년대 중반부터는 합작투자 형태로 지방호텔 건설에 적극 참여했다. 1975년 12월 부산 조선비치호텔 건설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77년 부여유수호텔과 구미 금오산 관광호텔, 설악산호텔, 경주 조선보문호텔과 경주보문호텔, 1980년 내장산관광호텔 등 전국 각지의 지방호텔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5 면세점 공사 단독 운영

정부는 1975년 6월 13일 공사의 유일한 자원조달 창구인 특정외래품판매소 항구·공항 영업소에서 양주 외에 다른 외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취급 품목 다양화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공항면세점 단독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관광진흥사업과 관광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16 한국관광공사로 사명 변경

1980년대 들어와 국내외 관광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와 업무를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공사는 1982년 11월 29일 20년 동안 지켜온 '국제관광공사'라는 사명(社名)을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하여 국제관광 진흥과 국민관광 진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했다.

17 야간 통금 해제

정부가 1982년 1월 5일을 기해 전국에 걸쳐 야간통금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 야간 통금 해제를 통해 시간제한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자 외국 관광객들의 야간관광, 지방관광, 심야관광 등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관광소비도 크게 늘었다.



50 ISSUES
Korea
Tourism
Organization



18 제53차 ASTA총회 개최

1983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된 제53차 ASTA서울총회는 '한국 성장의 관문'이 그 주제였다. 이 주제 안에는 미주지역에 대한 관광시장 개척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해외 소개, 상품 개발 촉진, 대규모 국제회의 및 행사의 독자적인 개최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공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19 공사 사옥 다동 이전

1985년 6월 30일 다동의 새로운 독자 사옥에 입주하여 창립 후 23년 만의 숙원을 이루었다. 사옥을 마련하자 기존에 분산되었던 공사 조직을 본사에 집중시켜 많은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으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20 제주관광개발공사 설립

중문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1980년 6월 17일 자회사 형태로 제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존 중문개발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한 제주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를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 휴양지로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단지의 개발과 관리 운영을 전담하기 시작했다.

21 종합관광안내센터(TIC) 개관

다동사옥 입주 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 점차 눈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전국의 관광객을 찾는 내국인들에게 대한 관광안내 및 각종 관광정보 제공의 과제도 절실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1986년 4월 23일 사옥 지하 1층에 종합관광안내센터(TIC)를 개관, 관광객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섰다.

22 충무도남관광단지, 남원관광단지 개발

1982년 12월에는 충무도남관광단지, 1983년 10월에는 남원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또 날로 증가하는 가족단위 관광객과 국내외 청소년 관광객에게 저렴한 관광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1987년 4월 산정호수 가족호텔과 남원유스호텔을 준공하여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23 PATA총회 개최

1987년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87 관광교역전은 전통적으로 PATA총회 직전에 개최되었던 관례를 깨고 1987년 5월 일본 오사카·교토에서 열린 PATA총회와 분리되어 개최되었다. 공사의 치밀한 준비와 열정으로 서울교역전은 많은 참가자들에게 한국을 '쇼핑관광의 목적지'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얻었다.

24 88서울올림픽 개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통해 '안전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따라서 서울올림픽은 향후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행사였다.

25 정부,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단행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때문에 국민의 해외여행을 억제해 온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1989년 1월부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을 완전 자유화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사는 올바른 해외여행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26 한·소 정상회담 제주중문관광단지에서 개최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추진, 1990년 제주중문관광단지에서 한·소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양국 간에 역사적인 국교가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91년에는 소련의 공산주의 포기과 공산당 해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힘입어 러시아 관광객이 급증했다.

27 한국 관광 홍보 본격화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국제관광 분야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자 공사는 이 같은 변화에 맞추어 1990년 6월 4일 한국 관광 홍보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일본 도쿄 등 5개 지역에서 해외 TV 광고를 시행했다.

28 '한국 방문의 해' 행사 시행 선포

정부는 1992년 4월 '94 한국 방문의 해 기본계획'과 2000년을 대비한 관광진흥증장기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계기로 공사는 종합적인 한국 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마케팅 전략을 재검토하면서 1994년 첫 '한국 방문의 해'를 새로운 관광진흥의 원년으로 삼고자 했다.

29 서남관광개발공사 설립

1991년에는 서남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민관광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한 제주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공사에도 착수했다.

30 북경지사 개설

1995년 들어 조직과 전략의 적합성을 고려한 조직운영 체계를 구축해 갔으며, 특히 해외진출 및 홍보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본지역에 본부제를 도입하고,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거점 확보를 위해 북경지사를 신설했다.

31 한국관광공사 광고에 대통령 등장

1997년 말 불어 닥친 외환위기 극복의 의지로 기획된 광고전략이 바로 대통령을 홍보모델로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98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촬영 과정에서 대통령과 한국을 대표하는 각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출연로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완성된 광고는 해외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방영되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

32 모스크바지사 설치

해외지사는 시장성에 입각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1997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해외사무소제를 폐지하기로 결정. 샤프토사무소를 선다지사로 이전하고 상파울루 및 자카르타사무소와 밀라노지사를 폐쇄했다. 아울러 신흥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상해지사를 개설했으며, 1998년 10월 시장성이 높은 모스크바지사도 신설했다.

3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자회사 설립

2005년 9월 공사의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설립했다. 기존 사행성 위주의 카지노 사업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해 친구와 친지 등이 국내에서 건전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 관광산업으로서의 외화 획득,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투자,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4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개시

1996년 10월, 공사 관광정보처 전산부에서 인터넷 영문 관광정보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 전 세계 이용자에게 한국 관광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에는 한국 관광에 필요한 유용한 제반 정보와 주요 관광지 소개, 지역정보, 숙박·교통정보, 관광상품, 이벤트 행사, 입·출국 정보 등 개인이나 단체가 한국을 여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었다.

35 공항 출국세 징수

1996년 외래관광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매년 21% 가량 증가하여 관광수지도 계속 적자 상태로 전환되었다. 문화체육부가 1997년 7월 1일부터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출국자로 하여금 일정액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도록 한 것도 관광수지 적자의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36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은 그동안 외래관광객들이 가장 큰 불편사항의 하나로 꼽아왔던 불결한 공중화장실을 개선하여 향후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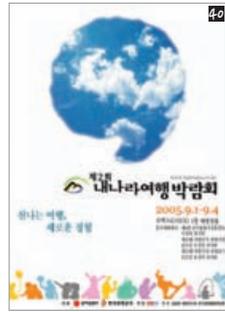
37 금강산 관광 시작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한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남북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다. 1998년 2월 14일 현대 측이 북경에서 북한 측과 첫 협의를 거친 다음, 같은 해 11월 18일에 금강호가 첫 출항하였다.

38 드라마 '겨울연가' 관광상품화

동남아에서 불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 붐에 따라 <겨울연가> 중역 직원인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만과 홍콩지역을 대상으로 촬영지 답사상품 개발을 위한 현지 팸투어를 실시했으며, 2002년 6월 12일 60명 규모의 첫 단체관광객이 방한하여 큰 호응을 이끌었다.





39 ASEM, 월드컵 개최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맞아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국제회의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 공사는 국내 유일의 국제회의 유치 운영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2002년 월드컵 기간에는 정부의 '월드컵 관광 종합지원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대회 성공을 이끌었다.

40 내나라여행 캠페인

공사는 2002년부터 국내 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여가문화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자 '내나라 먼저보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전국 관광지의 균형적인 발전과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캠페인이었다.

41 한국 관광 해외홍보사이트(tour2korea.com 8개 국어) 구축

2002년 3월 26일에는 'tour2korea.com'을 다시 전면 개편하여 해외관광시장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나섰다. 기존 영어·일어·중국어(간체·번체)에 8개 언어를 추가하여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42 전 세계 관광청 사이트 중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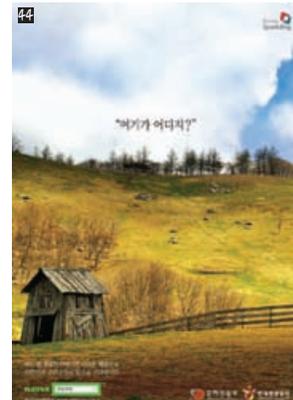
2005년 6월 20일 공사의 한국 관광 해외홍보 사이트 'tour2korea.com'이 전 세계 관광청 사이트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접 아시아지역은 물론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대국들의 관광청 사이트를 제치고 전 세계 주요 관광청 사이트 중 1위를 차지한 것이다.

43 새로운 CI 선포식

2005년 8월 23일 'Creative Vitality'라는 주제로 새로운 CI 선포식을 개최했다. 1988년에 제작된 기존 CI를 현대 감각과 추세에 맞춰 새롭게 제작한 새 CI는 손님을 환영하는 사람의 형상을 한국관광공사의 머리글자 'ㅎ'으로 상징화한 것으로서, 공사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미하였다.

44 구석구석 캠페인

주5일 근무제 및 초중고교 월 2회 토요일 휴교 정착 등 국민 여가시간 확대로 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06년 5월부터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돕기 위한 '구석구석 국내관광' 캠페인을 전개했다.



10 부가급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구분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결과
1. 100억 달러 이상 관광수입 달성	2009.1.1 ~ 2009.12.31	100억 달러 이상 관광수입 달성	100억 달러 이상 관광수입 달성
2. 100만 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	2009.1.1 ~ 2009.12.31	100만 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	100만 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
3. 100만 명 이상 의료관광객 유치	2009.1.1 ~ 2009.12.31	100만 명 이상 의료관광객 유치	100만 명 이상 의료관광객 유치



관광수입 통계

년도	채인
2005	5,793,000
2006	5,759,800
2007	6,093,500
2008	9,719,100
2009	9,782,400
2010	10,321,400
2011	12,247,700



45 외래관광객 500만 명에 이어 600만 명까지 돌파
2000년 외래관광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06년 10월 21일 6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결과 2007년 9월에는 누적 방한 외래관광객 1억 명을 돌파했다.

46 한국 관광브랜드 'Korea, Sparkling'
2007년 4월 10일에는 한국 관광산업 최초의 관광 브랜드 'Korea, Sparkling' 출범 행사를 갖고, 해외관광객 1000만 명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47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센터 개관
2009년 8월 26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공사 내에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안내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센터에는 간호사 등 6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입국 관광객들에게 출입국 및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였다.

48 정부경영평가 1위 달성
공사는 한국 관광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데 맡은 바 역할을 다한 결과 2010년 6월 1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09년 96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 1위를 달성하여 창립 이래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49 관광수입 100억 불 돌파
우리나라 관광수입이 2011년 100억 달러시대를 열었다. 1962년 135만 달러이던 관광수입은 2011년 9월 72억 달러를 넘어선 것에 이어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무난히 넘어섰다.

50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진입
2011년 1년간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은 사상 최초로 900만 명을 넘겼으며, 2008년 689만 명의 외래객을 유치한 이래 3년간 해마다 두 자릿수 증가를 거듭해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그리고 관광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공사의 지속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2012년 마침내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편. 찬. 후. 기.

한국관광공사 50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관광의 역사다. 한국관광공사가 걸어 온 50년의 여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하면 된다’는 불굴의 투지와 노력으로 관광의 불모지를 개척해 왔다. 우리 공사와 관광업계는 열악했던 환경 속에서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공사가 창립된 1962년 당시 연간 1만 5000명에 불과했던 외래관광객은 1978년에 이르러 100만 명을 넘어섰고, 작년 2011년에는 980만을 유치하였다. 50년 만에 무려 653배의 큰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창립 50주년인 올해는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활짝 열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2020년에는 2000만 시대를 열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관광공사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열정을 담아내기 위해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매우 의미있는 스토리북 한 권을 펴냈다. 매력적인 관광 한국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 역사적 뒀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에피소드, 울고 웃지 못할 소중한 값진 이야기들을 담아내기 위해 공사 관우회 선배님들을 비롯한 전 현직 임직원과 관계인사 분들을 만나 생생한 증언을 채록하였다. 그리

고 이 중 60여 편의 이야기들을 엄선하여 교훈과 웃음,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 탐과 열정이 녹아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수록하였다.

본 책에 수록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면 관계상 미처 수록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은 후배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현재의 위상을 넘어 더 큰 한국관광공사를 만드는 강력한 잠재력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선배들이 이룩한 가치이며 역사의 힘이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배님들과 본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공사 임직원, 특히 홍보물제작팀 신서경 차장님, 사진자료실 정복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제작사인 (주)다니기획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 6월

한국관광공사 사사편찬실

관광한국 50년을 이야기하다

도움을 주신 전현직 임원 및 관계인사 (가나다 순)

현 임직원

이 참

고종화

김종배

진수남

강성길

박병직

김조영

용환욱

전 임직원 및 관계인사

하대돈 (제10대 전 사장)

홍두표 (제16대 전 사장)

김종민 (제20대 전 사장)

이계익 (제11대 전 사장)

조홍규 (제18대 전 사장)

오지철 (제21대 전 사장)

권 순 (전 본부장, 전 경북관광공사 사장)

김종희 (전 본부장, 전 제주컨벤션센터 사장)

민병진 (전 지도부장, 전 제주관광협회장)

신희수 (전 도쿄지사장)

안용훈 (전 북경지사장)

오동진 (전 개발처장)

오문환 (전 워커히호텔 근무, 전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유동수 (전 본부장)

유환규 (전 본부장, 전 마카오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대표)

이경하 (전 본부장)

이광희 (전 본부장)

이시우 (전 워커히호텔 근무)

임주환 (전 본부장)

장경희 (전 본부장, 전 롯데관광개발 사장)

최갑열 (전 부사장)

최재근 (전 부사장)

홍주민 (전 본부장)

오휘영 (전 청와대 비서관)

한국관광공사 편찬FT

편찬위원 김조영 · 고종화 · 이성일

편찬실무담당 민정숙

실무협력 서영아

편집 · 제작

(주)다니기획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5 청림빌딩 3층

02-545-0623 · www.dani.co.kr

총괄 추기숙 · 집필 이필용, 김병선 · 기획 김진희

교정 강신애, 고건 · 디자인 진희정 · 일러스트 이구일

제작 사재웅 · 인쇄 서진문화인쇄사

관광한국 50년을 이야기하라

발행인 이 참
발행처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다동10)
Tel. 02-7299-600 / www.visitkorea.or.kr
발행일 2012년 6월

Copyright ©. 2012 KOREA TOURISM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한국관광공사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수단이나 형태로도 본 책에 수록된 내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97110-22-3



관광하기 좋은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

2PM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한국의 문화와 멋을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인 저희 2PM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한국관광공사 되시길 바랍니다.

슈퍼주니어

창립 50주년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2012년에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았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선진관광대국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전 세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즐기고 느끼면서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쿨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세계인을 한국으로 이끈 그 열정과 도전 정신처럼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우리 음식을 해외에 보다 널리 알리는 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이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이어 온 한국관광공사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영희

한국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는 한국관광공사와 한복은 늘 함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복을 사랑하는 디자이너로서 아름다운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힘 쓸 것입니다.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덕수

선진관광대국으로 이끌어주신 한국관광공사 임직원분들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우리의 맛과 멋 그리고 신명”을 많은 외래관광객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